

‘경험치 축적’ 김민재 “불펜 한 축으로 자리 잡겠다”

KIA타이거즈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프로 데뷔 첫해부터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배운 점을 바탕으로 올해는 불펜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프로 무대에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KIA타이거즈 투수 김민재가 하위 지명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개막 약 2개월 만에 정식 선수 등록과 콜업을 이뤄낸 뒤 미국과 호주 유학의 기회까지 받은 만큼 올해는 불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싶다는 포부다.

김민재는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프로 첫해였고 하위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콜업을 받아보자는 각오였다”며 “1군에도 네 번 올라갔고 미국과 호주에도 파견을 다녀왔다. 팬층은 한 해를 보낸 것 같다”고 지난 시즌을 복기했다.

신일고-동원과학기술대를 나온 김민재는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8라운드(전체 76순위)로 KIA의 부름을 받았다. 대졸 신인에 하위 라운더였지만 지난해 5월 정식 선수 등록과 함께 콜업됐다.

그는 “퓨처스 원정 중에 콜업 소식을 들었다. 저녁 늦게 경계를 보다가 전화를 보고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다”며 “택시를 타고 강화에서 광명으로 가다가 다시 서울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8라운드 시즌 초반부터 정식 선수 등록 미국·호주 파견으로 기량 향상 올해는 알토란 자리매김 목표

로 가서 버스를 탔다. 창원에 오면 다섯 시에 도착했는데 이동하는 내내 피곤함 없이 행복한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다.

김민재는 콜업 나올 만에 데뷔전에 나설 기회를 받았다. 첫 경기 두 경기에 구원 등판해 2이닝을 소화했지만 피홈런 두 개를 포함 4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 주변에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였다”며 “포수 미트 보고 던지기 바빴고 두 번째 등판에서는 긴장감이 조금 풀렸지만 원하는 걸 하지 못한 느낌이라 아쉬움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후 KIA는 시즌 도중임에도 김민재를 김기훈, 김현수, 유승철, 조대현과 함께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스에 파견해 교육을 받게 했다. 시즌 막바지 두 경기에 등판해 2이닝을 소화하며 점점 기회도 받았다.

김민재는 “미국에서 배운 루틴을 정립하고 스스로 생각도 많이 했다. 8월 중순과



KIA타이거즈 김민재가 지난해 9월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9월 초에는 하루씩 콜업을 받으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며 “9월 말에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공을 던지면서 나온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되짚었다.

또 KIA는 시즌 종료 후 김민재를 장재혁과 함께 호주 프로야구(ABL) 캔버라 캐벌리에 보내 하프 시즌을 치르게 했다. 캔버라 캐벌리에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된 김민재는 7경기(선발 6경기·구원 1경기)에 등판해 20.2이닝을 소화하며 3피와 평균자책점 6.10을 기록했다.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오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변화구도 많이 던져보고 마음껏 플레이를 한 것 같다. 한국에서는 투수가 주도하지만 호주에서는 포수의 리드를 따랐다”며 “커브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불었고, 불배합의 다양성이나 힘이 좋은 타자를 상대하는 방법도 깨달았다”고 밝혔다.

경험치를 풍부하게 쌓은 김민재는 올해 불펜의 한 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 시즌 막바지 엔트리 등록 당시 페넌트레이스 우

승 세리머니에 함께했던 기억은 강한 동기부여 요소가 됐다.

그는 “스프링 캠프를 잘 치러서 올해는 빠르게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싶다”며 “공교롭게도 지난해 네 경기 중에 우승 세리머니를 했던 날만 잘 던졌다.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더 잘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 산둥 원정서 졌지만 ACLE 16강 진출

1-3 패... 4승1무2패·동원그룹 4위 이정호 “리그선 다른 경기력 선사”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2025년 첫 공식 경기인 산둥 원정에서 졌지만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광주FC는 지난 11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스테이지 7차전에서 산둥 타이산에 1-3으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4승1무2패로 승점 13에 머물렀지만 동아시아그룹 4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8차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으로 산둥에 맞섰다. 헤이스와 유제호를 투톱에 내세우고 박정인, 신창무, 박태준, 아사니를 미드필드에 배치했다. 이민기, 조성권, 변준수, 김진호가 포백을 맡았고,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홈팀인 산둥은 최강희 감독이 정계로 벤치에 앉을 수 없는 상황에서 K리그에서 활약했던 제카와 바코를 선발로 내세워 경기를 임했다.

광주는 경기 초반 산둥의 공세에 밀려 경기의 주도권을 내줬다. 전반 7분 산둥의 공격수 크리장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전반 15분 선제골을 허용했다. 산둥의 바코가 오른쪽에서 올린 제카의 크로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광주 골망을 갈랐다.

선제 실점한 광주는 반격에 나섰다. 전반 26분 유제호, 28분 박정인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광주는 전반 32분 추가 실점했다. 상대 제카가 크리장의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 광주에 두 번째 실점을 안겼다.

이후 광주는 수비수 변준수가 부상을 당해 안영규를 투입해야 했다. 0-2로 뒤진 광주는 전반 35분 만회골에 성공했다. 이민기가 헤이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시도한 불이 수비수를 맞고 큰 각도로 굴절되며 상대 골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광주는 추가 시간 산둥의 크리장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했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문민서를, 후반 16분 올시즌 새로 합류한 황재환과 강희수를 교체 투입하며 추격에 나섰다.

광주는 후반 26분 헤이스가 날린 회심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28분 날린 황재환의 슈팅 역시 빗나갔다. 후반 추가시간 아사니의 프리킥도 수비벽에 막히며 더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두 골 차 패배를 당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자책하며 K리그에선 다른 경기력을 선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 감독은 “조직적으로 잘 막았어야 했는데 산둥 타이산의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매우 출중했다. 막지 못한 것은 감독인 본인 책임이다. 버거웠던 점이 있었다”며 “모든 면에서 상대한테 진 것 같다. 곧 리그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감독으로서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참피했다. 저부터 반성할 것이고 선수들과 올해 리그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한국, 프리스키 빅에어 종목서 은·동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윤종현 銀·신영섭 銅 획득 피겨 김채연, 개인 쇼트 최고점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6일째인 12일, 한국 선수단은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 종목에서 값진 2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윤종현(단국대)과 신영섭(강원대)이 12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 결선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종현은 결선을 169.50점으로 끝마치며 일본의 가사무라 라이(183.5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신영섭은 165.25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서 11일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신영섭이 5위, 윤종현이 6위에 그쳤으나 슬로프스타일과 더불어 이번 대회 처음 도입된 빅에어에서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며 전년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는 스키를 타고 하나의 큰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경기로 세 차례 연기를 펼쳐 가장 좋은 두 차례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순위를 정한다.

윤종현은 1차 시기에서 88.25점을 받아 가사무라(93.5점)에 이어 2위에 올랐고 2차 시기에서도 가사무라(9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81.25점을 기록해 합계 점수에서 2위를 지켜냈다.

신영섭은 1차 시기 67.5점에 그치며 메



피겨 김채연이 12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달관과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2차 시기 77.25점, 3차 시기 88점을 따내며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김채연(수리고)은 쇼트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을 세우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김채연은 이날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피겨 여

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9.82점, 예술점수(PCS) 32.06점을 합쳐 총점 71.88점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개인 공인 최고점(71.39점)을 0.49점 경신한 점수다. 김채연은 13일 프리스케이팅에 나선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